

# 금호타이어 우선협상자 中 ‘더블스타’ 유력

### 타이어 업체...오늘 채권단회의서 동의 여부 최종 결정

### 박삼구 회장측 우선매수권 행사 관심...자금력 관건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사실상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가 선정되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자금 마련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전날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를 선정할 것과 관련해 “기사는 봤지만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블스타가 1조원 안팎의 인수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져 자금 마련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

고 있다”고만 답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날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가 금호타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자금 마련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전날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를 선정할 것과 관련해 “기사는 봤지만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블스타가 1조원 안팎의 인수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져 자금 마련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

로 최종 확정하면 향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회장에 가격과 조건을 통보하게 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채권단에 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동의 여부를 묻는다. 최종 발표는 1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매각 가격을 통보받고 한 달 내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알려야 한다. 또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45일 이내에 계약금을 내야 한다.

이제 관건은 박 회장이 통보될 매각가에 1원 이상을 언저리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박 회장은 이미 2015년 금호산업 인수자금 7228억원 가운데 60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어 자금 동원능력이 떨어진 상태다.

박 회장이 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박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SPC를 세운 뒤 FI(재무투자자) 등을 끌어들여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개인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단의 매각 물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입찰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박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으로부터 내일쯤 최종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질 없이 인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서 박 회장이 입찰가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현재 나오고 있는 더블스타의 입찰가가 높다 낮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향후 자신에게 주어지게 될 담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각 과정이 올 상반기 내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1.87 (+7.70)
- ↓ 금리 (국고채 3년) 1.63% (-0.01)
- ↓ 코스닥 624.00 (-3.88)
- ↓ 환율 (USD) 1174.50원 (-7.60)



## 한전 ‘나눔의 설’

### 2주 봉사주간...복지시설 방문 조명등 설치·물품 전달 등

한국전력(사장 조환익)과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설명절 맞이 봉사주간’으로 정하여 본사를 비롯한 전국 300여 개 사업소 2만 여명의 봉사단원이 생필품 전달, 전기설비 점검 등 다양한 노력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영진 및 노조간부는 지난 16일 한전 본사가 위치한 나주시 아동복지시설인 ‘백민원’을 방문하여 소의정소년과 설맞이 음식만들기, 전로상담, 컴퓨터 및 전기설비 수리, 태양광 조명등 설치 등 노력봉사를 시행하고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및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한전은 나주시역 우수농·특산품인 쌀 150포대를 구입하여 복지시설 및 나주시지역의 독거노인·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한전 사회봉사단은 2004년 5월 창단 이래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원들의 일부를 모아 재원을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위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환익 사장은 “지역에 대한 사회적 기여,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태양광 조명등 설치 등 노력봉사를 시행하고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및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한전은 나주시역 우수농·특산품인 쌀 150포대를 구입하여 복지시설 및 나주시지역의 독거노인·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은행 여수 수산시장 복구성금 3천만원

### 긴급자금 100억원 용자지원도

K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관련 피해업체 구호를 위해 긴급복구 자금 100억원을 편성하여 17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이번 화재로 직접적 피해를 받아 긴급복구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현장 피해사실 확인만을 거쳐 업체당 최고 1억원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신규 운전자금 ▲신규 생활안정자금 ▲기 대출 무담보 기한연장 ▲기존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이다.

업체당 신규 지원금액은 기업 최대 1억원, 가계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의 금리 감면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규 긴급복구자

금 지원은 ‘관공서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각하고 현장 확인만으로 대출을 지원 하는 등 시장 상인들이 사업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 해 빠른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16일부터 광주은행은 수산시장 인근 소재한 여수지역에 긴급 복구자금 전달창구를 설치·운영하여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을 화재지역에 파견하여 피해 상인들을 위한 복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17일 오후 여수시를 방문하여 피해업체들의 조속한 재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복구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송중옥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은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민



17일 광주은행은 여수시를 방문, 여수 수산시장 피해업체들의 조속한 재기를 위한 복구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지역민과 상생하는 지역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유통업계 최강 한파 온다

### 1분기 경기전망지수 89...4년만에 최저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유통업계에 도 최강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1000여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전망지수(RB-

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지가 4년만의 최저인 '89'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RB-SI가 80점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

제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국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까지 이뤄져 유통업계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며 “김영란법 이후 맞이한 첫 명절이지만 설 특수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태별로는 인터넷쇼핑몰(108), 홈쇼핑(104)을 제외한 백화

점(89), 슈퍼마켓(85), 대형마트(79), 편의점(80) 등 다른 모든 업종의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어두울 것으로 전망됐다.

유통기업들은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50.2%), ‘업태 간 경쟁 격화’(15.1%), ‘업체 내 경쟁 심화’(13%) 등을 꼽았다. 1분기에 예상되는 경영요인은 ‘수익성 하락’(42.6%), ‘인력부족’(13.3%), ‘유통 관련 규제강화’(12.5%), ‘자금사정 악화’(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비싼 계란값’ 올해 내내 계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산란계(알 낳는 닭)가 대거 살처분되면서 올해 내내 계란 산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촌 고령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농업전망대회’ 주요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올해 AI 살처분 영향으로 닭 사육 마릿수가 대폭 줄어들어 올해 계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2.7% 감소한 56만t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해는 상반기 계란 산지가격이 하락에 연평균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는 AI 여파로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 기준)이 지난해보다 62.3% 급등한 1772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계란 값 불안은 올해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닭 사육 마릿수 감소가 1~2년 이내에 AI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농가 인구는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247만 명, 농가호수도 1.4% 줄어든 106만 호로 추정됐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올라간 40.2%로 예측됐다. 10명중 4명은 고령이라는 의미다.

다만,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농촌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됐다. /연합뉴스

###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협회 육성/골프투어 지원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러한 잔덴디와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스템!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